



미국 노동시장 변화와 시사점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(Baby boom) 세대들의 은퇴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은퇴 연령을 늦추고자 하는 유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¹⁾

-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연령이 2012년에는 48~66세, 2022년에는 58~76세가 될 것이며, 앞으로 본격적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할 것임.
-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, 실제 은퇴 연령보다 노동자들이 기대하는 은퇴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, 이는 그만큼 은퇴 시기를 늦추고 더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.
 - 실제 65세 이전에 은퇴하는 비율이 전체의 85%를 차지하였으나, 은퇴 연령에 임박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65세 이전 은퇴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47%에 불과하였고 70세까지 은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19%나 되었음.

■ 이처럼 은퇴 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퇴 이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.

-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은퇴 준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질문한 결과, 약 70% 정도가 보통 또는 보통 이하라고 응답하였으며,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은퇴 준비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낮았음.
- 이는 기대수명 연장으로 은퇴 이후에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한 데다 자녀의 양육비 부담과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노후 소득 마련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임.

■ 고령화로 미국 노동시장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, 향후 일반적인 은퇴 연령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.

1) LIMRA(2015. 7), "Age-Related: Potential, possibilities, and Problems as Workers Delay Retirement".

-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, 16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5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28%에서 2022년에는 38%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.
- 노동자 가운데 5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2년 14%에서 2022년 26%까지 확대될 것이며, 20~54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상승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.
- 대부분 고용주들은 이와 같은 고령 노동자 증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, 향후 노동자들의 은퇴 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함.
 -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, 현재 일반적인 은퇴 연령은 65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5~10년 이내에는 은퇴 연령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61%를 차지함.

■ **고령화로 인한 고령 노동자 확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주들의 움직임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.**

- 일부 회사들의 경우 이미 유연한 노동시간 적용,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제공, 연령 및 경험에 부합하는 업무부여 등 고령 노동자를 위한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.
- 고용주들은 고령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등을 고령 노동자 고용 시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은 반면, 고령 노동자들을 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험료 등의 비용 상승은 고민이라고 말함.
- 고령 노동자 채용으로 인한 비용 상승 부담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비용 상승으로 인식하겠다는 응답이 49%로 가장 많았고, 노동자와 공동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41%, 제공되는 보장 수준을 조절하겠다는 의견이 33%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됨.²⁾

■ **앞으로 은퇴 연령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보험소비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연금 상품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임.**

-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금 수급 연령에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통해서 얻는 소득을 추가적인 노후자금으로 축적하려는 수요는 확대될 것임.
- 장기간 연금 수급을 거치시킨 이후에 연금이 지급되는 거치연금(deferred annuity)을 포트폴리오 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소비자의 장수리스크 헤지와 더불어 고연령에 연금을 수급하는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임.

(LIMRA 등)

2) 복수응답이 가능하였음.